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5. 1. 9.(목) 06:00 < 1.9.(목) 석간 > 배포 2025. 1. 8.(수)

한-파키스탄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

- 서남아시아 제2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

서남아 제2의 거대 시장인 파키스탄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를 시작으로, 2025년에도 통상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수출 저변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잠 카말 칸(Jam Kamal Kahn) 파키스탄 상무장관은 1.9(목) 오전 서울에서 한-파키스탄 EP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였다.

*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FTA와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

세계 5위 인구대국인 파키스탄은 풍부한 노동력(인구 2.5억명, 청년층 비중 30%)과 천연자원(석탄·천연가스·구리)을 보유한 서남아 대표 잠재시장으로, 중국·인도 등 아시아 주요 경제권과 국경을 맞댄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한-파키스탄 EPA를 통한 교역·투자 확대는 우리 측의 수출 잠재시장 확보, 파키스탄 측의 안정적 경제성장 기여 등 양측 모두에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파키스탄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디지털·IT, 자동차 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만큼,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동 분야에서 협력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본부장은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 급변, 세계무역기구(WTO) 다자통상체제 약화 등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FTA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파키스탄을 시작으로 금년에도 글로벌 사우스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통상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방글라데시와의 협상 개시에 이어 금일 파키스탄과 협상이 개시됨으로써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서남아시아 대표 국가들과의 중장기적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 부서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박정미 (044-203-5740)
		담당자	사무관	이 연 (044-203-574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한-파키스탄 EPA 협상개시 선언식 개요**

□ 추진 배경

○ 서남아 제2의 시장, 세계 5위 인구대국(2.5억명)이자 풍부한 자원 보유국인 파키스탄과 EPA 추진을 통한 중장기적 협력 기반 마련

□ 행사 개요

○ **(일시)** '25.1.9(목) 11:00~11:30

○ **(장소)** 서울 롯데호텔 칼튼스위트(36F)

○ **(참석자)** 통상교섭본부장, 파키스탄 상무장관 등

○ **(행사 구성)** ❶ 한-파 통상장관 회담
❷ 한-파 EPA 협상세칙(ToR) 서명
❸ 한-파 EPA 협상개시 공동선언문 서명

□ 진행 순서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11:00 ~ 11:20 ('20)	• 양자 면담	통상교섭본부장, 파키스탄 상무장관
11:20 ~ 11:30 ('10)	• 한-파 EPA 협상개시 공동선언문 서명 등	

* 공개 범위 : 한-파 EPA 협상개시 공동선언문 서명식 공개(11:20~11:30)